

장난감에서 예술로 '아트토이' 전시

'가지고 싶은 피규어' 들 총출동 5월 4~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려

'가지고 싶은 피규어'들이 총 출동하는 제 3회 '아트토이컬처 2016'이 오는 5월 4~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.

가나아트센터와 아트벤처스가 주최한다. 이번 전시에는 클레인 스티카몬스터랩, 슈퍼픽션, 초코사이다, 키타이, 데하라, 데이비드 호바스 등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 120명 200여 명이 참가한다.

장난감에서 예술이 된 아트토이의 '무한 욕망'을 만나볼 수 있다.

조단, 에어맥스 등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 세계적인 피규어 아티스트 클레인(Coelrain)이 제작한 피규어용 신발 제작 키트를 판매하고, 인기 디자인 그룹 스티카몬스터랩(Slicky Monster Lab)의 컬래버레이션 시리즈를 모두 만날 수 있다.

카카오 아트토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슈퍼픽션(Super Fiction)과 카카오 메이커스 플랫폼에서 최단기간 매진으로 이슈가 된 초코사이다의 신상품도 선보인다.



두부브릭으로 불리는 '토후(Tofu)' 시리즈로 많은 국내 팬을 보유한 일본 아티스트 키타이 신이치로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어글리돌(Ugly doll)의 아티스트 데이비드 호바스가 협업한 작품과

일본 아티스트 데하라와 국내 가수 노라조의 유쾌한 콜라보레이션 작업도 나온다.

던킨도너츠, 파리바게뜨, 배스킨라빈스 등 SPC그룹의 대표 8개 브랜드와 유명 캐릭터 피규어 베이브라이 콜라보레이션한 상품도 첫 공개할 예정이다. 캐릭터들의 천국이 될 전망이다.

박근형 아트토이컬처 총괄 디렉터는 "지난 2014년 아트토이 전시회를 국내에 처음 선보인 이후 관심과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진다"며 "특히 올해는 어린이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으니 온 가족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전시가 되기를 바란다"고 말했다.

행사기간 작가와 함께 나만의 아트토이 만들기, 어린이 대상 무료체험 프로그램, 아티스트가 직접 전시장을 안내하는 도슨트(도슨트 전문지식을 갖춘 안내인) 이벤트, 작가 사인회, 라이브 페인팅 퍼포먼스, 세미나 등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. 자세한 소개와 참가신청은 아트토이컬처 공식

페이스북(https://www.facebook.com/arttoyculture)에서 가능하다. /정해은 기자



예술적인 아트토이들

인기 웹툰 '마음의소리' 모바일 게임으로

네이버에서 10년째 연재되는 인기 웹툰 '마음의소리'가 모바일 게임으로 만들어졌다.

네오위즈게임즈는 '마음의소리 with 네이버 웹툰'을 25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. 이 게임은 횡스크롤 2D 역할수행게임(RPG)으로 조석, 애봉이 등 마음의소리 인기 캐릭터 40여 명이 고스란히 재현됐다. 약 200여 개의 스테이지와 독특한 캐릭터별 스킬도 눈길을 끈다.

김준구 네이버웹툰&웹소설 CIC 대표는 "웹툰 원작의 모바일 게임은 기존 독자층에게는 흥미로운 경험이고 창작자에게는 새로운 수익화 가능성의 기회가 될 것"이라며 "다양한 팬층을 확보한 것을 바탕으로 모바일 게임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 /정해은 기자



정재영



한예리

개막식 게스트 발표

전주국제영화제 초청

배우 정재영, 한예리

영화축제를 목전에 둔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식 게스트를 발표했다.

고사동 영화의 거리 내 옥토주차장에 조성되는 야외 상영장에서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레드카펫 행사에는 각기 다른 영화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게스트들이 대거 참석해 영화제의 레드카펫을 화려하게 수놓는다.

초청 게스트 중 배우 정재영과 한예리는 각각 국제 경쟁과 한국편 경쟁 부문 심사위원을 맡아 개막식 레드카펫에 선다. 또한(무제한)으로 제8회 칸국제영화제 '주목할 만한 시선' 부문에 초청된 감독 오승욱은 '국제경쟁' 부문에 <인간중독>(2014)의 김대우 감독은 '한국경쟁' 부문에 <한공주>(2013)의 이수진 감독은 '한국편 경쟁' 부문 심사위원으로 참석한다. 이들과 함께 영화제 출품작의 주 조연 배우들도 초청돼 관객과 만난다.

'한국경쟁'에는 <최악의 여자의 권을> <커피숍>의 박철민, <우리 연애의 이력>의 전혜빈·신민철이, '코리아 시네마스케이프'에는 <시선 사이>의 오광록·김동완, <스타벅스>의 백성현·서신애·이상아·김우주의 크리스마스 의 허이재·심은진 <아티스트: 다시 태어나다>의 류현경·박정민, <검은 돼지>의 감독 겸 주연인 배우 안재홍 등이 레드카펫을 밟는다. 또한 '전주시네마프로젝트 2016'에 선정된 두 편의 한국영화 <우리 손자 베스타>의 감독 김수현과 주연 배우 동방우·구교환·김상현, <눈환>의 감독 조재민과 주니어(박진영)·지우가 레드카펫을 걷는다. 해외 작품인 <우아한 나체들>의 감독 루카스 발렌타 라이너도 참석한다.

해외 게스트로는 개막작 <본 투 비 블루>의 로베르 뷔드로 감독과 작곡가 데이빗 브레드, <스페셜 포커스 회고전>의 주인공인 필립 그랑디의 감독과 여배우 루시느 메스퀴다가 초청됐다. /정해은 기자

전주국제영화제, 영화뿐만 아니라

공연·전시 이벤트로 분위기 UP~

전주국제영화제는 영화뿐만 아니라 공연 및 전시 이벤트도 다채롭다.

이벤트는 메인공연인 뮤지션, 영화와 만나다'부터 '100 Films, 100 Resters' 등의 전시까지 실로 다양하다.

▲ 공연 이벤트 '뮤지션 영화와 만나다'는 4월 29일~5월 1일 3일 동안 오후 5시에 CGV 전주스튜디오에서 열린다.

음악과 영화의 만남을 주제로 한 이 공연은 초대 뮤지션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관련 영화 한 편을 선정하여 죄담을 나누고 이에 영감을 받은 곡을 들려준다.

인디음악 축제의 고정멤버인 데이브레이크, 옥상달빛, 소란 밴드가 요일별로 무대에 올라 감성 충만한 음악으로 무대를 채운다.

이와 함께 버싱킹 인 전주'의 공연은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영화의 거리에 있는 '버싱킹 스테이지'와 전주리운지에 조성된 'CGV 전주스튜디오' 무대에서 열린다.

현대 인디씬과 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뮤지션 12개 팀으로 구성된 이들의 공연 일정은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(www.jiff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또한 개막식 '밤마살-Camping in Jeonji'는 30일 야외상영장 <동주>(이준익)가 끝난 밤 10시부터 CGV 전주스튜디오에서 영화 관객을 맞이한다.

또한 폐막식의 전야제 행사인 C&M 착한 콘서트'는 5월 6일 오후 7시 전주리운지 내 야외상영장에서 열린다.

이 콘서트에는 크리앙트, 뽕뽕 등 뮤지션들이 무대에 올라 개성 넘치는 공연을 펼친다. /정해은 기자



쑤이랜드파크에서 운영하게 될 「남원예촌」 전통한옥체험시설은 평한루원 주변 11,079㎡의 면적에 꾸며진다.

남원시-이랜드파크 한옥체험 위·수탁 협약

남원시는 25일, (주)이랜드파크와 「남원예촌」전통한옥체험시설의 공동발전을 위한 위·수탁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.

이번 위·수탁 협약을 통해 (주)이랜드파크에서 운영하게 될 「남원예촌」전통한옥 체험시설은 평한루원 주변 11,079㎡의 면적에 한옥체험관 7동, 다목적 연회관 전 통장 등으로 건축되었으며, 전통한옥 분야를 대표하는 최기영(대한민국 중요무형 문화재 제74호)대목장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) 및 이근복 변의장(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121호) 등 최고의 명장들

이 혼을 담아 전통휴복, 전통공예, 전통기와 및기 등을 재현한 명품 한옥이다.

위탁운영자로 선정된 (주)이랜드파크는 이랜드그룹의 호텔레저 사업부로서 국내 컨싱턴H 제주호텔 등 6개의 호텔, 컨싱턴 리조트 서귀포 등 10개의 리조트, 한국콘도 3개 및 베이스타운 등 업계에서 국내 최대 사업장(총23개, 5,020실)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.

이번 협약식에서 이환주 남원시장은 "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광

한루원과 「남원예촌」의 연계로 통해 구도심 관광권의 확대 및 랜드마크 조성을 기대하고 있으며, 사람의 도시 남원과 나눔의 기업 이랜드파크가 만난 것은 순환의 사랑과 흥부의 나눔이 한 데 모인 것과 같다"라며, 상호 공동발전과 남원예촌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.

또한 이랜드파크 강성민 대표이사는 "남원예촌의 활성화를 위해 이랜드파크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최대한 동원하겠다"며 "남원예촌"의 성공적인 운영을 약속했다.

한편,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은 하계성수기를 맞아 2016년 7월 중순 경 개관할 예정이다. /남원=유영철 기자

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

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

HP: 010-6890-1468, 홈페이지: http://www.philslab.com/

<2016년 4월 26일>



▷쥐띠

46년생: 금전거래나 투자는 삼가는 것이 좋겠다.
60년생: 좋은 일 하다 뺏기는 격으로,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금물.
72년생: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.
84년생: 금전적 이득은 있으나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지 못하다.



▷용띠

52년생: 출타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.
64년생: 금전운이 좋아지는 시기이나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따르는 운이다.
76년생: 분주하고 정신없는 운이다.
88년생: 동기끼리 함께 진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.



▷원숭이띠

55년생: 다른 사람하고 시비가 발생하는 운이다.
69년생: 부부나 연인 사이에 의견이 맞물려 마음상하는 일이 발생하는 운이나 주의하라.
81년생: 뒷사람하고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다.
93년생: 원병은 삼가는 것이 좋은 운이다. 다치거나 사고수가 있다.



▷소띠

49년생: 가족과의 트러블이 예상되는 운이나 양보하고 참아 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.
61년생: 어려움이 있다면 뒷사람의 도움을 받아라.
73년생: 정신적으로 맑은 상태가 아니다.
85년생: 작은 일은 좋은 결실을 맺으나 큰일은 어려우니 참고하라.



▷범띠

53년생: 매사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.
65년생: 큰 금액에 관련된 것은 기다려야 이루어진다.
77년생: 시고수가 따르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전방주시에 주의.
89년생: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?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었다.



▷토끼띠

57년생: 고집은 금물,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.
69년생: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라.
81년생: 동기끼리나 손아랫사람보다는 뒷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.
93년생: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좋은 신호임을 기억하라.



▷호랑이띠

50년생: 분주한 운이나 좋은 결실이 있는 운.
62년생: 다른 사람에게 억압받을 일이 생기거나 후반에는 잘 풀리니 슬기롭게 대처하라.
74년생: 횡재수가 따르는 운이나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는 주의하라.
86년생: 인덕이 따르는 운



▷말띠

54년생: 너무 강하게 처신하면 적만 만드는 격이다.
66년생: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귀인을 만난다.
78년생: 동기끼리 화합이 잘 되고 편안한 하루가 되나 재물이 나간다.
90년생: 좋은 일하고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운이나 나서지 말고 상황을 지켜보라.



▷개띠

48년생: 식욕이 따르고 인덕이 생기는 운.
60년생: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점심시간을 활용해 보라.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.
72년생: 너무 맑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법이다.
84년생: 한가롭게 많은 것을 하라 하지 마라.



▷토끼띠

51년생: 길이나 도우니 민사가 평안한 운이다.
63년생: 사소한 것에 집착하면 안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.
75년생: 금전운이 좋아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운이다.
87년생: 하고자 하는 일에 구슬수가 따른다.



▷양띠

56년생: 재물에 욕심을 부리면 신상에 좋지 않으니 분수 밖의 일을 계획하지 마라.
67년생: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생겨나니 무시하라.
79년생: 출행하던 손재수가 따른다.
91년생: 혼자 판단하고 혼자 행동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다.



▷돼지띠

47년생: 구슬수가 따르는 운이나 반쯤 하지 않고 있으면 후반에는 풀린다.
59년생: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더 큰 이익이 따르는 운이나 베풀어라.
71년생: 문서를 주고받기에 아주 좋은 운이다.
83년생: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라.